

백두에서 한라까지 숲의 사계를 거닐다

우리 나무 백가지

이유미 지음

“오자마자 가래나무/ 달달 떠는 사시나무/ 하느님께 비자나무/ 방귀뀌어 똥나무...”

한때 8~9월 피는 능소화 꽃가루가 피부나 눈 점막에 닿으면 염증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실명한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네 개의 노란 수술 끝이 구부러져 있어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립 수목원 연구자들이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시험한 결과 능소화 꽃가루 표면은 그물모양으로 비교적 매끈한데다 능소화 추출물에는 세포 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오랜 세월동안 땅



다.

국립 수목원 이유미(53) 원장이 펴낸 '우리 나무 백가지'는 지난 1995년 발간 이후 국내 최고의 나무 길잡이 도서로 손꼽혀왔다. 최근 출간 20년 만에 개정 증보판으로 새롭게 선을 보았다.

이번 개정판에는 새롭게 밝혀진 사실을 추가하고 이전과는 달라진 학술적 분류와

에 깊은 뿌리를 내린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살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나무 이름뿐만 아니라 생태특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학명을 바로잡았다. 또 20년 세월동안 고사해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됐거나, 신규 등록된 나무를 소개한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나무의 생태, 이전과 달리 자생지가 줄어들거나 새롭게 발견된 식물에 대한 이야기도 담았다.

저자는 나무 열매나 쓰임새 여부를 따지지 않고 '우리화' 한 외래종(귀화종)을 포함해 우리 나무 100가지를 ▲모양새가 아름다워 가꾸고 싶은 나무 ▲도시에서 만날 수 있는 나무 ▲산과 들에서 자주 만나는 나무 ▲쓰임새가 요긴한 나무 ▲우리나라를 대표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한 나무로 구분해 설명한다. 나무의 학명과 분포지, 꽃과 열매 사진을 챙긴 도감이자 씨앗을 채취하고 삼목(꺾꽂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실용서이면서 나무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풀어내는 에세이이기도 하다.

느티나무는 무늬와 색상이 아름다워 우리나라 제일의 목재로 친다. '양반은 느티나무로 지은 집에서 느티나무 가구를 놓고 살다 느티나무 관에 실려 저승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다.

가로수는 인위적으로, 혹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도 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서울 시내 가로수의 49%를 플라타너스(버즘나무)가 차지했지만 요즘은 은행나무에 자리를 물려주었다.

20년의 세월이 흐르며 나무에 대한 저자의 태도도 바뀌었다. 예전에는 겨울살이에 대해 "밭을 출만 알고 출 줄 모르는 이기적인 식물"이라고 묘사했으나 개정판에서는 나무의 존귀를 인간의 짧은 시선으로 따지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자신의 과오를



느티나무는 무늬와 색상이 아름다워 우리나라 제일의 목재로 친다. <현암사 제공>

에도 들어가며 설명한다.

이 밖에도 손이 귀한 집에서 왜 버드나무 암나무를 절대로 뜰안에 심지 않는지, 제주에서 왜 동백나무나 자귀나무 심기를 꺼리는지, 독일에서 5월에 왜 처녀들이 다섯갈래 라일락꽃(럭키 라일락)을 찾는지 유래를 알아가는 재미도 쏠쏠하다.

'힐링'을 위해 숲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이때, '우리 나무 백가지'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 산하에 사계절 지라는 많은 나무들을 애정 어린 눈길로 바라볼 수 있게끔 길잡이를 할 것이다.

<현암사·3만2000원>
/송기둥기자 song@kwangju.co.kr

당신 책상 위에 놓여있는 문구들 그 속에 담긴 엉뚱 기발한 이야기

문구의 모험

제임스 워드 지음



것이 담겨 있다.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연필에 대한 이야기. 1761년 독일 뉘른베

나에게 딱 맞는 연필을 찾으려고 민하는 사람, 낯선 도시에서 가면 필수 탐방 코스로 문구점을 꼭 끼워넣는 사람, 문구점에만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 이들이라면 결코 이 책을 지나칠 수 없을 거다. '문구의 모험-당신이 사랑한 문구의 괴란만장한 연대기'. 너무도 사랑해지지 않은 온갖 문구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일단 저자가 흥미롭다. 제임스 워드는 문구에 관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풍평하는 런던 문구 클럽 공동 창설자다. 또 매년 '지루한 컨퍼런스(Boring Conference)'도 개최하고 있다. 재제기를 할 때마다 그 강도와 당시 상황을 기록하는 사람, 각 자판기의 덜컹거리는 소리를 녹음하고 비교하는 사람 등이 발표자로 나서는 행사다.

문구에 대한 다양한 상식과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기성천외한 대화를 개최할 정도로 엉뚱한 그의 유머가 넘쳐나는 글은 문구와 떠나는 모험을 더욱 유쾌하게 만들어 준다.

14장으로 구성된 책에는 문구를 사랑하는 당신이 궁금해하는 모든

르크의 금과 제작자 카스파어 파버가 만들기 시작한 파버 카스텔과 영원한 라이벌 스테들러 연필, 존 스타인백의 사랑을 받았던 블랙원 602 연필, 여기에 지우개가 달린 연필과 관련한 잡다한 이야기까지 흥미롭다.

그밖에 볼펜, 만년필, 종이, 지우개(수정액), 형광펜, 포스트 잇, 스테이플러, 서류함(파일·색인 카드)을 비롯해 풀, 스킨지 테이프 등 온갖 접착제에 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또 여행지에서 기념품으로 사오는 각종 문구류, 대형 업체들이 판촉물로 내놓는 홍보용 문구류에 얽힌 내용도 재미있다.

당신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문구류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에크로스·1만6000원>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야생의 교육=농사를 지으며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농사와 인문학 수업을 가르친 확덕명의 교육 현장에 대한 사유와 실제 교육 내용을 담은 책. 농사와 출판을 병행하다 출판과의 인연을 정리한 후, 강화도에 있는 대안학교 '산마을고등학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사상, 시사토론, 인문학, 생태농업 등을 7년 동안 학생들과 교호하며 견져 올린 소중한 기록이다. 저자는 학생들이 몸의 움직임을 통해 삶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스스로 깨닫길 희망한다. <삼창·1만5000원>

▲잔소리의 품격=한국 최초로 '성품'이라는 단어를 교육에 접목해 태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품교육으로 평생교육과 평생 삶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스스로 깨닫길 희망한다. <삼창·1만5000원>

어린이 책

▲재미있다! 한국사 1~6=선사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박물관, 유적지 등 전국 곳곳의 역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배우는 초등 한국사 시리즈. 4권 조선전기, 5권 대한제국과 일제 강점기, 6권 대한민국 출간으로 완간됐다. 새롭게 바뀐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역사 영역에 맞춰 초등학교생이 꼭 알아야 할 한국사 핵심 내용을 충실히 담아냈다.



3만 명의 아이를 변화시킨 성품교육 상담의 모든 노하우와 구체적 사례들을 한 권의 책에 담아 놓았다. <시루·1만3800원>

▲책벌레와 메모광=책과 메모를 둘러싼 옛사람들의 이야기. 책에 미친 책벌레들과 기록에 홀린 메모광들과 나는 대화의 기록이기도 하다. 1부에는 옛 책을 둘러싼 흥미로운 이야기들, 2부에는 옛사람의 기록과 관련된 이야기를 모았다. 글 한 편 한 편이 모두 옛사람들의 독서문화와 기록문화를 살펴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재미만이 아니다. 책을 향한 사랑과 기록에 대한 열정은 그 자체로 삶의 지혜요 든든한 문화적 유산이다. <문학동네·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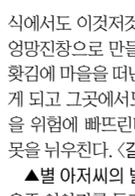


▲대단한 고양이 포포=말쟁이가 포포의 모험과 성장 이야기. 대단한 고양이 포포는 대단한 말쟁이다. 흰돌마를 결혼



이다. <문학동네·1만5000원>

▲잔테크 전성시대=회원 수 80만 명 잔뜩이카페(Daum)의 15년 잔테크 노하우 아낌없이 무한 방출. 스마트한 시대에 걸맞게 더 똑똑해진 잔뜩이카페의 42인이 누구나 맘 편히 실천할 수 있는 자산증식의 기술을 알려준다. 1부에는 잔테크로 맨주먹을 탈출한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 2부와 3부에는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잔테크 정보와 부자 되는 습관들, 4부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이룬 작은 부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길벗·1만3500원>



▲별 아저씨의 별난 우주 이야기=별과 우주 이야기를 들려주며 나와 우주와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해주는 스토리텔링 천문학 도서. 1권 달과 지구, 2권 태양과 그 행성들, 3권 별과 우주는 총 340컷의 놀라고 신기한 우주 사진과 그림이 실려

양한 문학 범주를 망라해 다뤄온 김중희 교수의 책.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해외동포들의 문화와 휴전선 이북의 북한 체제 내의 문화 등 저자가 애정과 관심을 쏟은 디아스포라 문화 관련 자료를 집대성한 연구서다. 저자는 '디아스포라(diaspora)'라는 말을,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고 36년간 식민 지배의 참혹한 시기를 보내며 타국으로 이주하거나 전쟁 후 역지로 분리와 살게 된 한민족의 역사에 대입한다. <문학과 지성사·1만7000원>

▲정의를 부탁해=25년차 베테랑 기자 권석천의 칼럼집. 저자의 눈은 한국 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세대와 이념, 지역의 벽 너머에 있는 진실을 직시하려 애쓴다. 세월호와 메르스의 한복판에서 권력과 검찰, 법원의 심장부까지, 참혹한 살인부터 절박한 취업까지 현장을 뛰다니며 그 속 사정을 파고든다. 주제들은 저마다 다르지만 그 주제들을 하나로 묶는 건 늘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한 안타까움과 새로운 지향점에 대한 고민이다. <동아시아·1만5000원>

호기심 많은 어린이들에게 다양하고 재미있는 볼거리, 읽을거리를 선사한다. <들메나무·각 권 1만4000원>

▲안전, 어디까지 아니?=우리 주변에는 매일같이 교통사고와 유괴, 오염과 감염, 건물 붕괴와 화재, 성폭행 등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며, 황사, 태풍과 폭우, 나들이 사고,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도 생긴다. 크게 다치거나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사고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는지 알면 큰 도움이 된다. <그레기아출판사·1만2000원>

(유)수호부동산중개법인은 법원경매 낙찰대리업무,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 스톱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질권대출, NPL매입,매각 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전국 최저 금리!! 전국 최고 한도!! NPL 잔금 5.2~5.9% 중도상환 無

(유)수호중개법인 물건 광고					
광주지방법원	2014타경 30504	주택	순천지원	2015타경 2628	공장
광주지방법원	2014타경 20736	상가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순천지원	2014타경 7817	근린상가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전주지방법원	2015타경 8853	근린상가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전주지방법원	2015타경 8863	근린상가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전주지방법원	2015타경 8853	근린상가	목포지원	2014타경 16341	숙박시설
목포지원	2014타경 16341	숙박시설	군산지원	2014타경 9739	공장
전주지방법원	2015타경 5779	숙박시설	군산지원	2012타경 7036	근린시설
광주지방법원	2013타경 10367	공장	남원지원	2015타경 377	공장
장흥지원	2015타경 605	공장	광주지방법원	2013타경 10367	공장
광주지방법원	2014타경 30627	공장	광주지방법원	2015타경 1428	공장
전주지방법원	2015타경 3629	공장	광주지방법원	2014타경 30627	공장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삼화/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 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 전문 기업입니다.

부동산 중개 및 부동산 경매, NPL 업무에 관심있거나 참여하실분 선정 모집합니다.

NPL 매입, 중개, 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 대출 지원 담당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수호 부동산중개법인

사업자등록번호 464-88-00084 / 법인등록번호 200114-0058676